

5.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

- 1. 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(BPD, 6.29. 서울 개최)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.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 받았다.
 - o Mark Knapper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전달
 - ※ 외교부는 ▲작년 5월 5.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43건과 ▲올해 5월말 14건을 전달 받은바 있으며, ▲이번에 추가로 21건을 전달 받은 것은 그간 미측과 다양한 소통 계기에 각급에서 긴밀 하게 협의해온 결과임.
- 2.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 「5.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금일 「5.18민주화운동 기록관」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.
- 3.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인권,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, 앞으로도 5.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 끝.